

간토 조선인학살사건을 규명하는 한국에서의 시민운동

김종수 목사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이 원고는 2013년 동북아역사재단에 발표했던 원고이고, 한국과 일본에서 다수의 연구자들과 함께 출판된 책의 원고입니다.)

1. 간토조선인학살사건의 규명활동의 출발

한국에서 간토조선인학살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활동의 출발은 극작가 김의경이 희곡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을 쓰기 위해 치바의 칸논지(觀音寺)에 간 일이 계기가 되었다. 언론인 신우식이 중심이 되어 1985년에 종을 만들고 종루를 짓기 위해 모금공연을 하면서 문화예술인과 언론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1985년 9월 1일 치바의 칸논지에 추도의 종과 보화종루가 세워지면서 한국의 시민들이 중심이 된 첫 추모제가 열렸다. 그 후 80주년이 되던 2003년에는 ‘관동대지진 한국인희생자 추모회’(회장 신우식·대한언론인회 명예회장)에서는 ‘보화종루’를 보수·정비하고 추모제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이후 한국에서 간토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활동의 또 한차례 계기가 된 것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일꾼을 양성하자는 두 시민단체, 한국의 ‘아힘나운동본부’와 일본의 ‘아시아하우스’가 공동의 역사교육 및 교류활동을 위한 ‘아힘나평화캠프’를 개최한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1) 계절학교에서 만난 증언자 야끼가야 타에코

2006년 여름(7.29~8.1), 해마다 아힘나운동본부가 주최가 되어 계절학교-캠프를 열어왔다. 이 해에는 도쿄 히노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에는 일본 NPO ‘아시아하우스’와 아이들의 자연&자유활동을 지원하는 ‘도롱꼬노쿠니(흙투성이의 나라)’와 함께 韓·日·在日이 함께 준비하였고, 참가자도 韓·日·在日의 차세대 청소년들로 구성되었다. 당시 동북아는 역사문제로 한·중·일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던 때였기에 ‘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애써왔던 세 단체는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아시아의 평화’가 시작된다는 데에 합의하고 캠프 주제를 “미래의 역사를 써가는 아이들”로 정하였다.

이 때에 초청된 강사가 야끼가야 타에코 선생이었다.

1913년에 태어난 만 10세 소녀 시절, 치바에서 조선인이 자경단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중략) 도착한 공동묘지에는 이미 구덩이가 파져 있고 그곳에 소나무 한그루가 있었습니다. 끌려간 사람은 눈을 가려 소나무에 붙들어 매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총을 쏘 구덩이에 묻혀졌습니다만 나는 무서워서 그 자리를 도망쳐 집으로 뛰어갔었습니다. 내 앞에 묶여있던 그 사람은 대체 어디서 태어나 어떻게 자라서 일본으로 어떻게 왔다

가 어디에 정착해서 살았던가, 여기까지 어떻게 잡혀왔는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략) "생활의 장소를 빼앗겨, 살기 힘들어 일본으로 건너왔을 그들은 슬프고 어둡게 이유 없이 조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야끼가야 선생이 목격했던 때와 장소는 1923년 9월 7일, 치바현의 나라시노시였다. 현 야치오시 농촌 몇 군데에 위치한 일본 군대가 나라시노 수용소 내의 조선인을 '주겠으니 받으러 와'라고 명했으며, 이에 조선인 18명을 자경단에게 拂下하였고 자경단은 조선인을 칼과 총으로 살해하였던 것이다.

그 날 이후로 야끼가야 선생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까지도 학살당해 죽어가는 조선인의 모습과 희미한 목소리로 자신을 바라보며 ‘말해줘, 말해줘’하는 마지막 음성이 때론 꿈 속에서 때로는 불현듯 환청으로 괴로워했다고 한다. 그리고 학살사건의 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깊어져 갔다. 그 트라우마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야끼가야 선생이 한 일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유학생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는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과, 간토조선인학살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에서 수십 년동안 묻어두었던 상처를 꺼내어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이었다.

2) 신주쿠 고려박물관에서의 열린 간토패널전시회



2007년 5월 25일, 신주쿠 고려박물관에서 간토조선인학살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패널전시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패널들 속에는 군대와 경찰, 자경단에 의해 끌려가고 학살당하는 사진들이 있었고, 조선인들을 죽여 마땅한 존재들로 만든 유언비어와 그것을 받아 소설을 쓴 신문기사들이 있었다. 기사들 속의 조선인은 모두 ‘不逞한 鮮人’이었고, 그리고 ‘帝都의 敵’이었다.

송부자 명예관장을 만나 사진과 자료의 해설을 들으며, 이것은 단순히 역사를 아는 차원을 넘어 1923년 이후로 일본도 한국도 단 한 차례도 진상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시민활동가이기도 한 목사로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제사장적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송부자 관장에게 한국에서의 패널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청하였다. 당일 저녁부터 심야까지 고려박물관 이사회가 열렸고 허락을 받았다. 이사회 의 허락 소식을 전하러 신오쿠보에 있는 모처로 찾아온 송부자 관장은 ‘자, 이제 어디에서 전시하려고 하느냐?’고 물었고 우리는 지체없이 ‘대한민국 국회’라고 하였다.



3) 간토조선인학살사건이 한국 국회로...

아힘나운동본부는 국회에서 간토사진자료전시회를 열기 위해서 역사를 전공한 의원으로서 당시 재일동포들의 인권에 기여한 바가 있던 민주신당 유기홍 의원을 찾아갔다. 유 의원은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의 대표간사로서 국회에서의 행사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행사 당일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9월 3일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유 의원과 한국 아힘나 운동본부, 일본 고려박물관, 일본 아시아하우스, 일본 NPO법인 Ahimna Peace Builders 등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단체 인사 20여명이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정부를 향해 관동대진재시 학살된 재일조선인 명예회복과 한일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후에는 국회 의원회관 1층 대 로비에서 유 의원과 이미경 의원, 관동대진재 일본인 현장 증언자 등이 참석해 오프닝 행사를 거쳐 사진 및 보도자료 전시회를 열었으며, 일본 고려박물관 관장의 1인극이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펼쳐졌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관동대진재 84주기 재일조선인 학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한일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심포지엄엔 야마다 쇼지 박사(일본 리쿄대학 명예교수), 강덕상 교수(시가 현립대학 명예

교수), 이은자 박사(간사이 학원대학)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고 그 밖에 일본 아시아 하우스 및 일본 NPO 법인 관계자 등 10명이 함께 했다.

2. 도쿄에서 간토조선인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연대조직 출범

2007년 11월 17일, 아힘나운동본부의 제안으로 사건 후 85년을 맞이하는 간토대진재조선인학살문제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의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 그리고 재일의 시민·연구자 등이 모여, 「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한·일·재일 시민모임」을 출범하였다.

이 날 모임에서는 향 후 ‘한·일·재일 시민모임’에서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실현하기 위해, 한·일·재일이 연대하여 한·일 양측 정부에 대해서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에 관한 특별 입법 제정」을 촉구해 나가자고 결의하였다.

『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한·일·재일 시민 모임』의 발기인 명단은 아래와 같다.

在日

- 姜 徳相 (關東大震災時朝鮮人虐殺事件史研究者、滋賀県立大学名誉教授)
- 琴 秉洞 (關東大震災時朝鮮人虐殺事件史研究者、元朝鮮大学校教授)
- 朱 文洪 (在日大韓基督教会小倉教会牧師)
- 鄭 宗碩 (韓国・朝鮮・在日と日本の歴史と文化を知る会代表、
關東大震災朝鮮人犠牲者を追悼する会幹事)
- 宋 富子 (高麗博物館長)
- 李 恩子 (関西学院大学客員講師)

한국

- 김중수 (아힘나운동본부 대표,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 박경서 (한국기독교장로회외국인선교협의회회장)
- 박진우 (한일민족문제학회,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서평일 (역사학자, 한신대학교 교수)
- 유기홍 (국회의원, 국회올바른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 조진경 (일본NPO法人AhimnaPeaceBuilders이사장)
- 하중문 (한일민족문제학회, 한신대학교 교수)

日本

- 山田 昭次 (關東大震災時朝鮮人虐殺事件史研究者、元立教大学名誉教授)
- 松尾 章一 (關東大震災70周年、80周年記念行事实行委員会委員長、法政大学名誉教授)
- 八木ヶ谷 妙子 (NPO法人共に生きる国際交流と福祉の家代表、朝鮮人虐殺目撃者)

사무국

- 日本 高橋伸子 (アジアハウス代表)
- 한국과 在日 金令順 (아힘나운동본부/NPO法人AhimnaPeaceBuilders事務局長)

발기인을 대표하여 야마다 쇼지 박사의 인사이다.

한국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일본에서 관동 대진재 조선인 학살 사건을 생각하는
오늘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강덕상 선생님은 그 저서 「간토대진재」(중공신서, 1975년)로 이 사건을 「일본
관민 일체의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조선인 학살을 막으려고 한 민중이나 이
사건을 비판한 아키타 우자쿠, 후세 다츠지, 요시노 사쿠조우, 나카니시 이노스케
등의 지식인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소수파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규정은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중은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관헌의 정보를 왜 용이하게 믿었는가.그
것은 당시의 왜곡된 교육이나 매스컴의 영향에 원인이 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습
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고,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강한 일체감이나 거기로부터 발
생하는 무조건의 신뢰가 있었던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상기
와 같이, 소수라고 해도, 조선인 학살을 막으려고 한 일본인 민중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제일 조선인에 접하고 있었고, 일본국가의 테두
리를 넘어 조선인의 인간적인 장점을 알고 있었겠지요. 여기에 미래를 향한 유산
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즉시 국가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화해 나갈 필요
가 있습니다. 그것 없이 각국 민중의 교류와 연대에 의한 국제 평화는 있을 수 없
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전후의 역대 일본수상들의 상당
수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대한 반성은 없고, 일본인 전사자를 나라에 생명을
바친 순국자로서 계속 현창해 왔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매년 참배해 전사자에게
경의와 감사를 바친 코이즈미 수상은, 그 전형적인 수상이었습니다. 민중을 침략
전쟁에 동원해 무의미하고 유해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사죄
한 수상은, 유감스럽지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관동 대지진 시 조선
인 학살의 국가 책임에 대한 국가의 80여 년에 걸치는 침묵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국가의 편달을 받은 지방 자치체가, 공립의 초중고의 학교나 양호학교의 졸
업식이나 입학식에는 히노마루(일장)기 게양, 기미가요(일본국가) 제창을 강요해,
도교 도는 이에 복종하지 않은 교원을 척척 징계처분으로 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에서는 그만큼 열심히 국가의 권위의 회복을 도모하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사상 현황 중에서, 한국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 사건을 조사해 추도하는 것은, 국가의 테두리를 넘은 민중 교류의 일환으로
서 큰 의미를 가지겠지요.

지금까지 시민에 의해서 계속되어 온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 사건의 조사와 추도
의 귀중한 유산을 계승하면서, 이 운동이 전진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당시 참의원 오오가와라 마사코의원의 축하메시지이다.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한*일*재일 시민 모
임」의 출범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사건 후 84년을 거친 지금, 사건의 진상을 찾는 조사·발굴·연구는, 그야말로 시간
과의 싸움이며, 관계자의 여러분의 수고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에 서울시·한국 국회 의원 회관에서 특별 행사에는, 많은 한국 시민의 관심
을 이끌었다고 들어, 일본에서의 활동에도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되리라 짐작이
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과 유족의 명예 회복의 실현을 위해서, 변변치 않은 힘이나마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의 「한일 재일 시민 모임」의 출범과 향 후의 활약이, 한일 양국뿐만 아니

라, 넓게 아시아 시민의 연대를 펼쳐 함께 아시아의 미래를 개척해 가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7年11月17日 参議院議員 大河原雅子

사무국을 맡아 수고하신 니시자키마사오(그룹 호우센카 대표)의 인사말이다.

우리들은 매해 9월 첫째 토요일에 아라카와(荒川)하천, 지금은 키네가와(木根川)라는 곳입니다만 거기에서 추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유롭게 가져 가십시오. 25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당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기누타 씨가 아라카와 방수로가 인공의 강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몰랐는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자 조사를 하고 몇 년 연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지금은 없는 요츠기바시(四ツ木橋)를 조사하는데 간토대진재 때 많은 사람들이 학살 당해서 지금도 유골이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시작한 운동입니다. 「간토대진재 시에 학살된 조선인의 유골을 발굴하고 추도하는 모임」이라는 긴 이름의 모임입니다. 「그룹 호우센카」는 그 이후에 만든 스미다구의 사회등록단체입니다. 「추도하는 모임」의 지부 같은 것입니다. 시민이나 회사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직도 유골이 묻혀 있다고 들었기에 거기를 파보기도 하였는데 그 때 시굴한다는 것이 호소성이 있어 독에는 사람들이 죽 나란히 서 있는데 거기서도 증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증언들을 정리한 것이 이 책입니다.

스미다 지역에 한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역의 학살의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 진 것 같습니다. 증언이 나온 시기는 증언자들의 연령 등 제한이 있어 1982 년부터 1985 년경까지가 한계였습니다.

그 이후는 발굴을 하는데 있어서도 실제로는 아라카와 독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닌 가라든가 신문 자료를 자세히 보니 카메이도(亀戸)사건의 희생자도 여기에 같이 묻혀 있어 카메이도 경찰이 두 번에 걸쳐 유골을 파내서 어디 가져갔다가 여러 이야기가 나와서 발굴하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그 후 추도비를 그 곳에 세우자고 했으나 1급 하천의 하천 부지는 법률 규제가 엄해서 당시 건설청에 교섭을 해 봤지만 안 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미다구와 같은 공공단체가 뒷받침을 해준다면 생각을 해 본다고 하여 우리는 진술서를 스미다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아까 정종석 씨도 말씀을 하셨지만 스미다구 의회에서 검토되기는 했으나 한 번 계속심으로 들어가 결국 안 된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공적자료가 없고 시민들에게 유리하지 않으며 위령추도라는 일종의 종교적 행위에 구(区)가 관계하지는 못 하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좀처럼 추도비도 현장에, 하천부지에 세우지도 못한 채 질질 25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든 사유지라도 얻어서 거기에다가 세워 볼까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늦은 발걸음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노력을 해 나가 운동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오래간만에 이쪽에 나왔는데 많은 분들을 뵈게 되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송부자 씨는 제가 대학교 때 어느 모임의 강사로 초대를 해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강덕상 선생님은 오늘 안 계시지만 선생님 덕에 제일 친구와 함께 가기도 하였고, 또 야마다 선생님은 「추도하는 모임」 대표를 맡아 주시라고 릿교대학교로 부탁드리러 간 것을 기억합니다. 야마다 선생님은 당시 제일한국인의 정치범 구원 자료를 열심히 봉투에 채우시면서 바쁘니까 절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분은 사람이 워낙 좋으셔서 결국은 해주십니다. 모임의 준비회를 출범할 때 대표를 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상태로 모임을 출범 못하니까 꼭 해 달라고 협박해서 임시대표로 모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는 아직 일본 안에서, 일본인 안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착실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병동 공동대표 (간토조선인학살사건사 연구자, 전 조선대학교 교수)의 인사말이다.

오늘 이 시민연대가 출범함으로써 간토대진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게 될 것이고, 말하자면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우선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개월쯤 전에 만 80살이 되었습니다. 일본인의, 장수국의 평균수명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70살 때 오래 살았구나 라고 느꼈는데 그때부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를 털어놓아도 별로 상관없겠다고 할까, 그리고 이제는 더 몇 년을 살 수 있는지 모르고, 또 내일 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수치를 털어놓는 것인데 아까 마츠오 선생님이 식민지조선에서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국소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저와 반대의 뜻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반대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예전 7월이었는지, 아사히신문 기사를 하셨던 분이 자신의 아버지가 관계하신 『싸우는 조선』이라는 아사히의 사진집을 다시 신간서로 내었는데 그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나카츠카 아키라 선생님 다음에 지명을 받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석을 하신 분도계시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한 적은 없는데 실은 저는 제일 2 세입니다. 옛날부터 놀라시는 분들이 많지만 만 80살인데 2 세입니다.

그 역사적인 8월 15일은, 저는 만 17살, 곧 만 18살, 아시겠지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마츠오 선생님이 13,14살 때 군국소년이라면 저는 무

엇이었겠습니까?

즉 8월 15일 역사적인 교쿠온(玉音)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삼촌이 이타바시(板橋)에 계셔서 작은 공장을 경영하고 계셨습니다. 누나가 4월에 결혼하여 시즈오카(静岡)에 소개(疎開)해서 후지노미야(富士宮)에 있었는데 부부가 8월 15일에 거기에 오니까 너도 오라는 연락을 받고 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11시 경 전보가 와서 표를 살 수 없어서 못 가겠다고,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삼촌과, 그리고 저와 동갑인 사촌과 점심으로 소면을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정오가 되어 라디오에서 교쿠온방송을 시작한다고 하기에 저는 그 자리를 일어나 혼자 라디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교쿠온방송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소년이었습니다. 교육의 성과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가를 몸으로 알았습니다. 그 『싸우는 조선』, 저는 바로 거기서 일본의 지배층이 조선인에게 요구한 것을 그대로 해온, 요구대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원했고 저는 그것을 그대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황의 교쿠온방송을 들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삼촌이 가만히 보고 있어서, 제가 자리로 돌아가니 삼촌은 첫마디에 일본은 졌다, 조선은 독립이다, 라고 저와는 정 반대라고 할까 이놈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지요. 사촌은 17살이었는데 마르크스가 어찌고 레닌이 어찌고 라고 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그와 동갑인데 마르크스라는 이름도 앵겔스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레닌은 어렵듯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서쪽에 레닌이 있고 동쪽에 하라 다카시(原敬)가 있다라는 유명한 와세다의 나가이 류타로의 그 연설이 있어서 약간 알고 있을 뿐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일가친척 중에서 혼자 라디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삼촌은 걱정을 하셨던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겠다고. 그래서 「독립이다」는 말을 하시면서 동시에 화를 내셨습니다. 「일본이 지고 조선이 독립한다고 해서 기쁜 얼굴을 하지 마라, 그것을 일본인들은 보고 있다。」고.

거기서 처음으로 간토대진재의 이야기를 삼촌에게 들었습니다. 간토대진재에서 조선인은 몇 천 명이나 살해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토대진재가 있었던 것은 알지만 조선인이 살해된 사실은 그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날에 실은 저는 간토대진재에 대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일본인이어서, 일본국민은 어떻게 되겠는가, 천황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계실까, 하고 이런 생각을 했을 뿐, 충격의 여운이 남아있었습니다. 왜 제가 간토대진재에 관심을 가졌는가, 저와 같은 어리석은 자라도 패전으로부터 반년이나 1년이 지나면 알지요, 모든 구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는지도 통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고 있었지요, 자기회복이라는 것은.

그리고 오오타구 이케가미(大田区池上)에 하숙하던 시기, 하숙집 할머니가 70세 쯤 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조선인은 신사적으로 되어 아주 좋은 사람이 많은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간토대진재 때 불을 지르고 독을 집어 넣거나 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가고, 실은 이것으로 하여 간토대진

재에 정말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삼촌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저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그 이야기를 들고 나오셨겠지만, 이 할머니의 말은, 이것은 큰일이다, 알고 있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간토대진재는 전부 날조이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간토대진재에 관심을 가져 자료를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저와 강덕상 교수가 젊었을 때 같은 연구모임에 나갔었는데 거기서 일한우방협회라고 해서 총독부의 고관이었던 사람들, 정무총감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그리고 경성일보의 기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거기서는 우리 젊은 것들이 공격하면 사람들이 그에 응해주었습니다. 조선에 오래 계신 관계로 이 분들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 강덕상 군이, 젊었기 때문에, 30 전인가 30이 되는 나이, 저는 5 살 위이기 때문에 대략 30 좀 넘은 나이 때, 그가 간토대진재의 보고를 한다고 하니, 그렇구나, 싶어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 이정도 논리정연하게 말을 할 수 있구나, 라고 감탄하였고, 또 제가 모으고 있던 자료를 그가 역사학연구에 투영하였습니다. 그때 전면적으로, 아, 이것은 말하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것을 거의 내놓았는데 그런 와중에 저도 1961년부터 조선대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둘이서 자료집을 내자고 해서 서로 2,3년간 작업을 하다가 같이 합쳐서 자료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출판사에 맡길 것인지, 대체로 이와나미(岩波)에서 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신기하게도 둘의 의견이 미스즈서방의 현대사자료에 넣고 싶다는 것으로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갔더니 小尾씨라는 편집장이 출판합시다, 그것도 아주 초기인 제 6집에서 현대사자료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여 63년에 저와 강덕상 교수의 편저로 현대사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아까 마츠오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중공신서에서 『간토대진재』를 냅니다.

한편 저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후 료쿠인서방(綠蔭書房)에서 4권의 자료집을 냈습니다. 간토대진재와 관련하여 아동증언자료나 관청자료, 그 외 식민지조선에 있어서의 신문의, 아까 말씀하신 동아일보만이 아니라 조선일보 등의 주요한 사실을 번역해서 출판하였고, 진재에 대한 지식인의 반응이라는, 상하 2권으로 된 책을 내었습니다.

그러한 경과가 있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만, 그러나 운동체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다른 운동에서도, 운동에 참가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으나 저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때 써야 할 것들이 있어서 도저히 그런 데에 시간을 낼 수가 없다, 그러한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9월 1일에 간토대진재에 대한 강연의 의뢰를 받아 카톨릭의, 사이타마현과 도쿄 세키구치교회와 요코하마의 교회였는데, 신부님을 비롯한 30여명의 앞에서 강연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저는 바로 오늘 이 발언의 결어로 말씀드려야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것에 대해서 강연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주도하는 단체나 모임이 있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성껏 간토대진재 문제를 다루어 왔던 것 같아도 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제가 결어부분에서 이야기한 내용의 요지만이라도 말씀드리고, 나중에 본문을 다시 써볼까 하고 생각합니다만, 그 내용은 4 가지, 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정부에 사건의 정확한 조사와 사죄를 요구한다. 아까 한국에서 오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증거로 될 만한 것이 없다는 일은 없다. 우리는 증거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모아 왔고 마츠오 선생님도 군의 관계를 3 부 내었습니다. 대단한 자료입니다. 또한 목격자도 있고, 목격담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둘째로, 일본의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각 당에 공작, 호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책임하지만 저는 자신이 운동체를 만들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학살사건이 금후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한다. 그러기 위한, 즉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일본정부에 요구한다.

넷째로, 이것을 아시아 제민족의 신뢰회복을 위해 꼭 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

이상 4가지를 실은 최근 수 년 동안 간토대진재에 관한 강연을 부탁받았을 때, 결어부분에서 언급하고는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민연대가 출범함으로써 이제 운동을 주도하는 핵심체라고 할까, 빛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골자에 덧붙일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주시고, 만일 저에게 시민연대 찬동호소문을 만들어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골자에 넣어서 만들자고 생각합니다.

수치와 함께, 아니, 80이 되면 부끄러운 것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한일재일시민 연대사업

「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한·일·재일 시민모임」의 한국 사무국으로서 「1923 한일재일시민연대」를 조직하고 한국내에서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로 등록하였다. 간토조선인학살문제를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유일하다.

한·일·재일시민연대의 사업은 크게 대중홍보사업,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토론회, 학살현장을 찾아가는 스터디투어,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입법화,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주도사업, 학살희생자 유족찾기로 진행되었다.

1) 사진자료 전시회와 학술 심포지엄

대중홍보사업으로서 사진·자료전시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토론회와 맞물려 진행되었다.

(1) 동일본(關東)에서 서일본으로 넘어간 간토조선인학살사건 전시회 (2008년 1월 ~ 2월)

한·일·재일 시민연대가 첫 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간토조선인학살사건을 서일본지역에 알리는 일이었다. 북부 규슈와 시모노세키에는 한일교류를 주된 활동으로 삼는 시민단체들이 많고, 재일조선인들도 많이 살고 있다.



기타큐슈시(北九州市)를 시작으로 하여 시모노세키시(下関市), 타가와시(田川市)를 거쳐 다

시 기타큐슈시에서 진행되었던 순회전시회는 한일의 우호와 평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바라는 한·일·재일 시민들이 힘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마당이 되었다.

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과 관련한 패널들은 1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재일조선인의 인권운동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재일대한국교회 고꾸라교회에서 전시되었고, 23일부터 27일까지는 시모노세키시민활동센터에서 전시됐으며, 30일부터 2월 3일까지는 타가와시 석탄·역사박물관에서 전시되었다. 2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기타큐슈로 넘어가 시립 남녀공동참여센터 '무브'에서 진행되었다.



(左上) 야마구찌신문
(左下) 요미우리신문
(右上) 니시니혼신문

(2) 한신대 학술원과 공동주최로 열린 학술심포지엄과 사진·자료전시회 (2008년 3월 27일)

2007년 9월에 열린 국회에서의 1차 심포지엄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가 이루어졌다면, 2차 심포지엄에서는 간토조선인학살과 3.1운동과의 연계성을 강조하였고 (강덕상, 서평일), 또한 일본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 운동과의 연계성 속에서 학살사건의 원인(야마다 쇼지)을 조명하였다.

강덕상 교수는 이 날 발표의 말미에 한국 정부를 향해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재외 공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하물며 까닭도 없이 학살된 사람들이다. 일본 정부는 물론 이 항의를 무시하고, 「불령한 놈들」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 후 80여 년,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열지를 않았다.

해방 전, 진상 규명을 언급하면 형무소행이었다. 대일본 제국이 붕괴한 전후는 어떤가. 진상 규명의 요구는 여전히 봉쇄되었었다. 필자의 기억에 의하면 1950년대, 중의원에서 모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당시 이케다 수상은 「과문하므로 알지 못함」이라고 답변했을 뿐이다. 이상한 일인데. 한국 정부에서부터도, 이재외 공민 대학살에 대해 일본 정부에게 진상 규명과 사죄를 요구하는, 또 독약 투입, 방화 등의 유언비어에 대해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그러한 외교적 제의는 한 번도 없었다. 상하이에 있던 망명 정부가 요구한 사죄, 진상 규명을, 그 계보를 이어서 오늘이 있는 한국 정부가 왜 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인가. 역사에 시효는 없다. 불행한 시대의 극복에는 진상 규명이 불가결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3)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주최한 학술심포지엄 (2009년 3월 28일 종로 기독교회관)

3.1절 90주년, 강제병합 10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의 우익들은 식민지 범죄를 전면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아시아의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 열린 제4차 국제 심포지엄은 조선인학살을 제노사이드적 관점에서 조명(마에다야키라, 일본 조형대학 교수)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향후 일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한·일·재일 시민연대를 넘어 이 소송을 위한 국제적 해결공조의 가능성을 내다보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다.



제4차 국제심포지엄 (2009. 3. 28 기독교회관)

‘한 걸음의 진전’을 위하여 / 김종수

독립운동 · 불령선인 · 학살 / 강덕상

관동대진재 시 조선인학살 사건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 / 야마다 쇼지

관동대진재 시 조선인학살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 책임에 대하여 / 박한용

코리안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 / 마에다 아키라

국제연대를 통한 코리안 제노사이드 해결 제안 / 윤미향

일본변호사연합회 권고의 취지와 재발 방지 / 아즈사와 카즈유키

關東조선인학살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전망 / 위대영

關東조선인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성명



(4) 제주 4.3 기념공원에서 열린 간토 패널 전시회와 심포지움
(2011년 8월 27일 ~ 9월 11일)



요코하마 - 학살조사 회수와 증언

- 지도 내 O인의 숫자는 학살된 시체의 조사 횟수
- A-O는 경관이 남아 있는 장소. 경관은 밭, 원문 그대로
- 초등학교 이름은 징재 관련 지명이 남아 있는 학교
- 지역 내 회수 장한 곳은 회수 조사 지역

본 조사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된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된 지도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A-O는 조사된 장소로, O는 조사 횟수를 나타냅니다. A-O는 경관이 남아 있는 장소로, 밭, 원문 등 자연 경관이 남아 있는 곳과, 초등학교 이름에 징재 관련 지명이 남아 있는 학교, 지역 내 회수 장한 곳(회수 조사 지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A (요코하마 신시가지) :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희생된 일본인 거주민의 집이 남아 있어 회수되었습니다.
- B (요코하마 신시가지) :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희생된 일본인 거주민의 집이 남아 있어 회수되었습니다.
- C (요코하마 신시가지) :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희생된 일본인 거주민의 집이 남아 있어 회수되었습니다.
- D (요코하마 신시가지) :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희생된 일본인 거주민의 집이 남아 있어 회수되었습니다.
- E (요코하마 신시가지) :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희생된 일본인 거주민의 집이 남아 있어 회수되었습니다.
- F (요코하마 신시가지) :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희생된 일본인 거주민의 집이 남아 있어 회수되었습니다.
- G (요코하마 신시가지) :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희생된 일본인 거주민의 집이 남아 있어 회수되었습니다.
- H (요코하마 신시가지) :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희생된 일본인 거주민의 집이 남아 있어 회수되었습니다.
- I (요코하마 신시가지) :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희생된 일본인 거주민의 집이 남아 있어 회수되었습니다.
- J (요코하마 신시가지) :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희생된 일본인 거주민의 집이 남아 있어 회수되었습니다.
- K (요코하마 신시가지) :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희생된 일본인 거주민의 집이 남아 있어 회수되었습니다.
- L (요코하마 신시가지) :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희생된 일본인 거주민의 집이 남아 있어 회수되었습니다.
- M (요코하마 신시가지) :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희생된 일본인 거주민의 집이 남아 있어 회수되었습니다.
- N (요코하마 신시가지) :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희생된 일본인 거주민의 집이 남아 있어 회수되었습니다.
- O (요코하마 신시가지) :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희생된 일본인 거주민의 집이 남아 있어 회수되었습니다.
- P (요코하마 신시가지) :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희생된 일본인 거주민의 집이 남아 있어 회수되었습니다.
- Q (요코하마 신시가지) :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희생된 일본인 거주민의 집이 남아 있어 회수되었습니다.

회수된 시체는 요코하마 신시가지에 있는 회수 장소에 회수되었습니다. 회수된 시체는 요코하마 신시가지에 있는 회수 장소에 회수되었습니다. 회수된 시체는 요코하마 신시가지에 있는 회수 장소에 회수되었습니다.

수용소 및 인근 마을에서의 학살

- 군대가 선별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내어 준 조선인 -

9월 7일 나리사는 수용소는 인근 마을에 "조선인들을 내어 줄 테니 나의 오라"고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금 받아 와서 각 구별로 배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월, 9월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대는 마을 사람들에게 살해시키기 위해 조선인들을 받으러 오라고 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다카쓰(高津)에서 6명, 그 중 5명은 오사키(大崎) 사람들이라는 이이(伊)도 있다. 오오다신현(大和田新田)에서 3명, 가이리시모(鹽田下)에서 3명, 가이리시(鹽田上)에서 2명, 오오다(大和田)에서 2명이 살해당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후나리시(新市)에서는 9월 6일 조선인 박해를 금한 계엄사령부의 비리가 배포되었지만 이를 확인자가 살해당한 것은 그 후였습니다. 현재 오오다신현, 가이리(長崎), 가이리(高津), 가이리(高津)에서 회수된 시체는 회수된 시체를 회수하여 회수했습니다.

이 사진은 요코하마 신시가지에 있는 회수 장소에 회수된 시체를 회수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요코하마 신시가지에 있는 회수 장소에 회수된 시체를 회수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요코하마 신시가지에 있는 회수 장소에 회수된 시체를 회수한 사진입니다.



‘1923한일재일시민연대’는 ‘4.3의 땅’ 제주에서 ‘간토 제주행사실행위위원회(공동대표 고희범, 이정훈, 홍성직, 김창규)’를 조직하고 간토사진자료전을 보름동안 열었다. 자료제공은 일본의 협력파트너인 ‘국가책임을 묻는 모임’과 ‘재일한인역사자료관’에서 제작한 것을 한국어로 번역·제작하였다. 시민·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각급학교나 시민단체 및 종교기관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고, 총 22점으로 구성되었다.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이 행사를 기획한 이유는 학살된 조선인 중 3인이 제주출신이었기에 유족을 찾는 일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제주 평화공원 내 제노사이드 역사관에 간토조선인학살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함이었다.

(5)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의원회관 및 기장총회교육원에서의 토론회
(2013년 6월 19일 ~ 20일)



2013년 올 해는 간토학살사건이 일어난 지 90년이 되는 해로서 유기홍의원과 특별법제정에 대하여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그리하여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 모임’과 ‘국회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의원 모임’이 ‘1923한일재일시민연대’와 공동주최하여 일본에서 연구자와 진상조사활동가 9인과 국회의원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의회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 형식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다음 날에는 7월 초에 파송될 한국 민간조사단을 위한 사전교육으로서 학습 토론회가 진행되었고, 조사단 이외에 대안학교 학생들과 종교인들의 참여하여 진지한 학습이 이루어졌다.

2) 학살현장을 찾아가는 스터디투어

간토조선인 학살현장은 크게 도쿄, 요코하마, 치바, 사이타마, 군마지역으로 나뉜다. 학살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지역마다 학살의 주체와 양태가 달랐기 때문에 비교적 자세한 듣기조사를 위해서는 보통 4박 5일로 진행되는 일정으로는 모든 곳을 돌아볼 수는 없었기에 한 번 갈 때마다 그 특정지역의 몇몇 사례에 집중해서 듣기조사를 하였다.

2008년 1월에는 도쿄와 치바지역을 돌아보았다. 듣기조사라기 보다는 사전답사의 성격이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주에 도쿄 YMCA에서 열린 85주기 추도행사에 서핑일 공동대표는 발표자로 한신대학교의 국사학과, 일본지역학과 학생들과의 스터디투어를 기획하였다.

300여 좌석이 꽉 채워져 서 있는 사람도 많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85주기 추도행사에 칸논지의 보화종루를 세우는 공사를 감독하였던 고령의 심우성 선생을 모셔갔다. 대부분 간토조선인학살사건의 연구자 및 활동가들이 이미 70대를 넘어섰다. 모두 고령이었으나 이 날 참석한 만 95세의 야끼가야타에코 선생께서 자신들을 향해 ‘젊은이들이 더 나이들기 전에 진상규명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라’는 말에 모두 폭소하였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투어는 도쿄 요코야미초 공원에 있는 추도비와 아라가와 학살 현장, 치바 칸논지의 보화종루와 나기노하라학살터, 그리고 역시 치바에 유언비어를 전국으로 퍼뜨린 해군송신소와 조련이 세워 놓은 학살주체와 희생자들의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새겨진 추도비를 찾아가 설명을 들었다.

치바 칸논지의 나기노하라는 수용된 조선인을 군대에서 살해용으로 이 지역 자경단들에게 拂下하였고, 수일동안 밤마다 칼과 총으로 학살되었다. 학살된 조선인들의 묻혀진 구덩이에 목련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는 주변의 어떤 나무보다 울창하게 자라났다.

아라가와 학살현장에서 추도비를 세운 니시자키 마사오 선생은 대학시절부터 간토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희생자들의 주소를 들고 유족을 찾기 위해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였고 또한 보고서를 쓰기도 하였다. 이 지역의 진상규명활동가들은 아라가와 강가에서 학살된 조선인을 묻었다는 다수의 증언들이 나오자 구청에 집요하게 요청한 끝에 발굴허락을 받았지만 끝내 유해는 나오지 않았다. 후에 확인해 보니 1923년에 일본 사회주의 희생자들의 가족이 유해를 묻은 곳을 알아내어 찾으려하자 밤중에 모든 유해를 어디론가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신문기사를 찾아내었다. 당시 신문기사의 제목은 “의문의 괴공사”였다. 결국 ‘유골을 발굴하여 추도하는 모임’에서는 처음 묻혔던 강가에 봉선화와 무궁화밭을 만들고 잘 키워 씨를 받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학살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였다. 니시자키씨는 그룹 ‘봉선화’를 만들고 교사직도 그만 둔 채 진실규명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그 뜻에 동참하는 많은 시민

들의 도움으로 비록 아라가와 강가는 아니지만 독 너머에 작은 땅을 사서 학살의 주체와 희생자, 학살의 동기를 명확히 새겨 넣은 추도비를 세웠다. (2009년 8월 29일)

흥미로운 것은 각 지역에서 간토진상규명활동을 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지역사를 가르치거나 다문화공생교육을 하면서 간토조선인학살사건을 만나게 되었고 지역에서의 진실규명활동에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2009년에는 아힘나 평화학교 학생들과 역사현장수업의 일환으로 도쿄, 사이타마, 군마지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특히 사이타마, 군마지역은 지진의 피해가 전혀 없던 지역이었음에도 많은 학살이 일어났던 것은 계엄령이 발포되면서 마을의 유지들이 자경단을 조직하여 조선인들을 닥치는대로 살해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곳에 유일하게 학살자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는 강대흥·구학영의 추도비가 있는데, 특히 구학영의 비문에는 나이와 고향주소가 새겨져 있었다.(具學永 28 경남 울산군 상면 산전리)

일본에는 석비이외에 해마다 추도의 마음을 담아 추도목비(토바)를 세우는 풍습이 있어, 아힘나평화학교 학생들은 한국에서 소나무를 가져가 ‘조선인학살의 진상규명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의를 담아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연명하여 학살희생자 추도비 뒤에 목비를 세웠다.



2010년 8월 9일에는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회원들과 함께 도쿄 요코야미췌공원에 있는 추도비 앞에서 머리 숙여 추도하고 아라가와 학살현장을 찾아가 니시자키 선생의 기나긴 노력으로 세워진 추도비의 얽힌 역사이야기를 들었다.

[한국민간조사단]

간토조선인학살 90년을 맞아 기획한 [한국민간조사단]의 학살현장조사는 그동안 찾아가지 못했거나 시간상의 이유로 스쳐지났던 곳에 대한 조사활동에 무게가 실렸다. 일정은 2013년 7월 2일부터 6일까지였고, 참가자는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간토90주년행사준비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인터넷신문 ‘에큐메니안’ 등 7명으로 구성하였다.

조사활동은 한국에서의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입법화에까지 상당히 근접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일본의 활동가들은 예년보다 더욱 신중을 기하여 준비하였고, 하나라도 더 많은 조사결과를 들려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조사활동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일본의 각 지역조사단의 안내로 당시의 사건 정황을 알아볼 수 있는 현장을 돌아본다.

둘째,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다양한 증거자료, 다양한 증언들을 수집한다.

셋째, 한국정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할 경우, 그동안 조사할 수 없었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모아 본다.

넷째, 한국정부가 학살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경청하고 이를 위한 일본 시민사회와의 협력방안을 생각해 본다.

4박 5일간의 일정은 아래와 같다.

▲ 7/2(화) : 치바(千葉) 조사

안내 및 설명 : 히라카타 치에코, 오오타케 요네코

1. 다카즈 칸논지(觀音寺)
 - (1) 나기노하라(유골발굴장소)
 - (2) 위령의 종, 종루
 - (3) 詩탑
 - (4) 간토대진재 조선인희생자 위령의 비
2. 쇼우후쿠지(長福寺) 지심공양탑

▲ 7/3(수) : 사이타마(埼玉), 군마(群馬) 조사

안내 및 설명 : 다나카 마사타카, 다카하시 다카스케, 야마다 쇼지

1. 쇼우센지(常泉寺) 조선인 강대홍 묘
2. 쇼우주인(正樹院) 감천수우신사 조선 경남 울산군 상면 산전리 구학영
3. 쇼우도우지(成道寺) 위령의 비 17명의 희생자 성명
4. 후지오카 공양탑

▲ 7/4(목) : 도쿄(東京) 조사

안내 및 설명 : 강덕상, 니시자키 마사오, 타카노 히로야스

1. 舊 츠키시마 3호지
2. 에이타이 다리 동쪽 끝
3. 요코야미쵸 공원 도쿄도위령당, 조선인희생자의 비, 부흥기념관
4. 舊 오키라 다리
5. 라칸지(羅漢寺)
6. 쇼우신지(淨心寺) 카메이도 사건 희생자의 비
7. 호우센지(法泉寺) 감사의 비
8. 스미다구 야히로 한국·조선인 순난자 추도의 비

▲ 7/5(금) : 요코하마(横浜) 조사

안내 및 설명 : 이마모토 요우코, 야마모토 스미코

1. 나카무라 강가의 학살지
2. 호우쇼우지(寶生寺) 간토대진재 한국인위령비
3. 간토대진재 순난조선인 위령의 비
4. 미츠자와 묘지(학살조선인 매장지)
5. 렌쇼우지(蓮勝寺)
6. 코튼하버 아사노 조선소 터 (학살현장, 당시의 매립지)



민간조사단의 학살현장 지역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

계엄령과 관련하여

1. 일본 국가는 단순한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유언비어를 근거로 삼아 계엄령을 발포하였다. 계엄령에서는 '조선인은 敵'이라 하였고, 즉시 체포 또는 반항할 시에 즉결처형을 허용했으므로 이는 사실상 '전쟁상태'를 선포한 것이었다.
2. 일본 국가는 계엄령 발포의 근거를 유언비에 두었다. 실제 그러한 일이 일어난 사건은 없었다. 학살이 건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국가기구에 의한 학살을 중단하고 민간으로 하여금 학살하도록 유인하고 방조하였다. 그리고 유언비를 사실화하려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날조하였다. 유언비가 처음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확실한 것은 경찰과 군대가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를 유포하였고, 그것을 빌미로 계엄령을 발포하였다는 것이다. 유언비를 사실 확인도 없이 국가가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유언비를 계엄령 선포의 정당한 이유로 삼았고, 자경단은 이 계엄령을 근거로 조선인에 대한 무차별로 학살할 수 있었다면 분명 일본 국가는 위법적 행위를 한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게 있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학살했는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3. 군대, 경찰, 자경단은 학살의 주체로서 아주 잔혹하게 조선인을 학살하였다. 목을 자르고 사지를 잘라버리거나, 양쪽 팔과 다리를 줄로 매달아 찢어 살해하거나 특히 여성의 경우 성기에 죽창을 꽂아 넣고 임신부의 배를 갈랐으며, 탯줄에 감겨 우는 아이까지 무참하게 학살하였고, 사지와 머리를 बे기도 하였다는 증언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4. 국가는 학살의 주체가 된 자경단에게 책임을 들씌우고 있으나 자경단을 만들 것을 '지시'하고 행동지침을 내린 것도 국가였으며, 군대는 수용된 조선인을 자경단에게 불하(拂下)하는 등 학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자경단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황국신민이기에 명령에 따르는 민중이라 할지라도 사실확인도 없이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人道를 저버린 살인마의 광기로 닥치는대로 학살한 저변에는 뿌리깊은 조선인 차별의식과 내셔널리즘에 예속된 집단광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국가의 은폐 및 왜곡에 대하여

5. 일본 국가는 학살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재 피해로 사망한 일본인 사체와 함께 소각하여 그 신원을 알 수 없게 하였으며, 학살 관련 기록을 소각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통해 사건을 은폐하여왔다. 또한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명분으로 계엄령을 발포하였고 학살을 자행하였으므로,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유언비어를 사실화하려고 왜곡하는 등 학살에 뒤이어 은폐, 왜곡 등 제2, 제3의 국가적 범죄를 잇달아 저질러왔다.

일본의 사건처리에서 보여주는 책임전가 및 형식재판에 대하여

6. 학살에 가담한 자경단들에 대한 일본 사법부의 재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재판에서는 판사와 피고인 간에 농담이 오갈 정도로 형식적인 재판이었으며, 조선인을 죽인 것에 대한 죄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조선인을 학살한 자 대부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선고받은 이들 가운데에는 국가가 상을 주지 않고 벌을 내렸다는 것에 반발하기도 했다.

일본의회와 일변의 질의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에 대하여

7. 1923년 12월 1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헌정회 소속 의원 나가이 류타로(永井柳太郎)가 關東대진재 당시 조선인 학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할 것과, 조선인 희생자의 '유족을 위안하는 최선의 방법'을 보일 것을 촉구했으나, 당시 총리의 '현재 조사 중'이라는 책임회피성 발언이 있는 뒤 지금까지 일본 의회에서 정부의 책임을 묻은 일이 없다. 일본변호사협회는 2003년 재일조선인 문무선의 호소로부터 사건을 조사한 일이 있다. 그리고 학살에 국가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2003년 8월 일본정부에 대하여

- 국가는 關東대지진 직후의 조선인, 중국인에게 대한 학살 사건에 관하여 군대에 의한 학살의 피해자, 유족에 대하여, 허위사실의 전달 등으로부터 국가의 행위에 유발된 자경단에 의한 학살의 피해자, 유족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 국가는 조선인, 중국인학살의 전모와 진상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이를 묵살하고 아무런 공식입장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간토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한 교과서의 역사왜곡에 대하여

8. 2012년 요코하마교육위원회가 발행한 중학교 역사 부교재인 [와카루 요코하마]에서 간토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한 기술 중 “군대와 경찰, 재향군인회와 청년회를 모체로 조직된 자경단 등이 조선인에 대한 박해와 학살을 자행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일본의 우익 세력들의 압력에 못이겨 교과서를 회수하라는 조치를 하였다. 왜곡된 교과서에는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해 군대를 요코하마에 출동시켰다. 이유는 자경단 가운데 조선인을 살해하는 행위로 나아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로 바꾸고 “학살”을 “살해”로 바꾸는 등으로 기술하여 일본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정부의 진상규명에 대한 노력이 전무함에 대하여

9. 1923년 학살 사건이 있던 해 상해 임시정부가 조선인 학살사건을 조사한 이후, 현재까지 국가적 가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사건 당사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적절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미루어 왔다는 것은 국가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역사교육에 간토조선인학살사건이 사라진 것에 대하여

10. 한국의 역사교과서에는 이 사건에 대한 무지 혹은 식민사관에 의한 역사기술로 ‘유언비어에 의한 우발적 학살’ 등의 일본교과서의 왜곡된 내용을 그대로 수록해 왔었으며, 최근 역사교과서에는 아예 간토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90년 전, 간토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범죄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현재에도 진행 중인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한국정부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일본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이는 재외국민을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적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의 의회와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2013. 7.

3)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입법화 운동

2007년 9월 3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대표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신당 유기홍 의원과 한국 아힘나 운동본부는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일본 고려박물관, 일본 아시아하우스, 일본 NPO법인 Ahimna Peace Builedrs 등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단체 인사 20여명이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정부를 향해 관동대진재 사건으로 학살된 재일조선인 명예회복과 한일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08년 선거에서 유기홍 의원이 낙선하면서 한일재일시민연대는 여러 관련 정치인들을 만나 간토문제의 해결을 위한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결국 18대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은

다음 19대에서 기대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국가로 하여금 진상조사를 하여 일본정부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기위하여 정부기구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간토조선인학살사건의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진화위는 1923년의 간토조선인학살사건은 동 위원회의 조사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종 입장을 정리하였다. 한국 진화위에 전향적인 움직임을 기대하며 위원장을 만나 설득하려던 일본 공동대표 야마다 쇼지박사를 비롯해 마에다 아키라교수, 하리카타 치에코 등 연구자·활동가들은 한국 진화위의 최종입장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간토조선인학살사건은 일제하 식민지범죄를 다루는 어느 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받아 안을 수 있는 기관이 없었다.

국가에 의해 책임을 묻게 하는 방법은 이 문제를 진상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1923한일시민연대는 학술 심포지움과 사진자료전시회를 열고 종교기관이나 대학에서 특강을 할 때마다 특별법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동시에 2009년부터는 한국의 역사단체와 연대하여 [강제병합 100년 공동행동 한국실행위원회]를 조직에 참여하고 식민지과거사해결을 위한 공동실천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인 실천 아젠다를 만들기 위해 기타큐슈에서 한일 과거사청산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들과의 학습토론회를 기획하고 실행하였으며, 한국실행위의 2010년 활동에도 힘을 모아갔다. 워낙 미청산과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제 단체들의 당면과제들을 추진하는 일에도 힘이 모자랄 지경이었기에, 포괄적인 식민지범죄청산을 위한 법제정을 추진하자고 하였으나 뜻대로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언론에서도 일본군위안부문제, 강제연행문제, 사할린동포문제해결 등에 집중되었다. 다만 간토조선인학살 시민운동이 대중들에게 보다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강제병합 100년 특집’으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서 간토조선인학살문제에 대한 집중보도되면서였다. 이 후 웹상에서의 네티즌들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간토문제해결의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의 대표기구인 NCC를 통한 법제정 운동을 호소하였다. 일본 NCCJ-URM의 목회자들은 일본에서 민주화운동과 평화운동에 몸담고 있는 종교인들이라 비교적 어렵지 않게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정의와 평화위원회, NCCJ(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URM, KCCJ(在日大韓基督敎會)등 한국과 일본의 종교계에서 간토조선인학살문제와 현재 재일동포들이 당하는 차별의 문제가 선교의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련 대회가 열릴 때마다 이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가가 조속히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일본정부의 책임을 묻는 일에 함께 기도하자는 결의를 이끌어냈고, 교회력에 9월 첫 주일을 재일동포인권선교주일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2013년 한일URM협의회(3월 18일~20일, 교토 일본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간토조선인학살 진상규명을 한국 일본 양 정부에 촉구하는 매우 의미있는 성명서를 만들어냈다. 국가의 책임과 사과를 촉구하며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계가 먼저 이 사건에 대한 공통의 역사적 시점에서 공식적인 문서를 채택한 것이었다.

이미 제9회 대회(한국.제주)에서 강제병합 100년과 일제식민지범죄에 대한 역사적 입장을 발표한 일에 대하여 한일URM협의회는 여전히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제10차 협의회

에서는 간토조선인학살사건 90주년을 맞아 단독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일본기독교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NCCJ-URM), 한국 기독교 협의회 정의와 평화 위원회(NCCK-Justice and Peace Committee - 이하 NCCK-JPC)는 일제에 의한 강제병합 100년의 해에 개최되었던 제9회 한일 NCC-URM협의회에서 일본의 강제병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NCCJ-URM과 NCCK-JPC는, 한국강제병합은 일본의 무력에 의해 의협받은 것이고, 그것은 국제법상에도 체결할 때부터 무효이었기에 일본정부의 조선 식민화에 대하여 어떠한 구실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오늘에 남겨진 식민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언하였음을 확인하고,

조선의 식민화로 인해 발생된 문제 즉, 간토대진재시 조선인 학살문제, 야스쿠니합사문제, 사할린 잔류 조선피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 식민지 지배 결과 일본에 거주하게 된 재일한국*조선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포함하며, 한국정부는 일련의 문화재반환요구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한일기본조약의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선언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과제로써 한일 양국 교회는 일본정부가 식민지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한*일의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근현대사 교육을 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9월 첫째주일을 [재일한국*조선인 인권주일]로 선포하고 이를 지켜가며, [간토대지진 시 조선인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협력해간다고 선언하였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특히 올 해는 [간토대지진 시 조선인학살사건]이 일어난 지 꼭 9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일본정부 및 한국정부의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간토제노사이드 희생자 90주기 추도식 한일공동준비위원회]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WCC 제10차 부산 세계 총회에서 "NEVER AGAIN GENOCIDE"를 주제로 한 전시회와 국제학술토론회를 부대 행사로 개최하게 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 [간토대지진 시 조선인학살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일본정부와 지역교육위원회의 책임회피를 위한 역사왜곡을 지적하고, WCC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NCCJ-URM과 NCCK-JPC는 각 소속 교단과 지역 교회와 함께 아래의 사항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 일본정부는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와 왜곡*은폐하려는 모든 시도를 공개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일본 총리는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저지른 범죄를 공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를 사죄하고, 유족들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 일본과 한국의 국회에 대하여 [<간토 대진재 조선인 학살사건>사건의 진상조사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 한국 정부는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초조사를 이어받아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건관련 자료 일체의 공개를

일본정부에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 한국과 일본 역사 교과서에 [간토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수록할 것을 요구한다.

NCCJ-URM과 NCCK-JPC는 이러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가기로 한다.

2013년 3월 20일

제10회 한일 NCC-URM협의회 참가자 일동

일본기독교협의회 도시농촌교선교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평화위원회

입법화 논의는 결국 2012년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유기홍의원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그동안 여러차례 언론에서 언급되면서 간토조선인학살문제가 서서히 대중들에게 알려졌고, 올 해가 90년이 되는 해라는 점, 그리고 일본사회의 급속한 우경화 현장 등이 맞물려 지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의 입법화에 대한 국회에서의 공감대도 확산되어갔다. 또한 동북아역사특별대책위원회에서 유기홍 의원과 임수경의원의 노력으로 특위의 사업으로 되어 향 후 국가적 차원의 진상규명의 첫 출발이 될 전망이다.



간토조선인학살진상규명을 위한 입법화는 결국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을 위한 기구 설치 가 목표이며, 조사기구의 역할은 일본 연구자들과 진상규명활동가들이 수집하고 저술한 모든 자료를 한국어로 DB화하는 업무, 국가로부터 학살사실의 인정을 받아내기 위한 제반업무, 학살희생조선인의 유족을 찾는 것은 주업무가 될 것이다.

4)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도사업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교회력에는 매년 9월 첫 주일이 재일동포선교주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가 왜 그렇게 제정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지나간다. 하지만 2007년 간토조선인학살사건을 본격적으로 한국사회에 알리기 시작하면서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중심으로 한 추도행사를 해 오고 있다.

2007년에는 신주쿠 고려박물관을 돕고 있는 서울노회 초동교회에서 송부자 관장의 1인극과 함께 추도예배를 드려졌고, 85주년을 맞는 2008년에는 서울노회 향린교회에서 2011년에는 제주노회 주관으로 그리고 2012년에는 간토제노사이드희생자90주기추도행사준비위원회주관으로 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한국기독교장로회에에서 시작된 9월 첫 주일 재일동포선교주일의 의미를 한국과 일본 재일기독교교단이 공동으로 지킬 것을 권고하는 중요한 문서가 채택된 것이다. 그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일본사회와 재일동포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향 후 재일동포의 차별 문제와 협력문제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앞서 제시한 제10차 한일URM협의회(2013년 3월 18일~20일) 성명서에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재일한인기독교단이 9월 첫 주를 기해 일제히 ‘재일동포인권선교주간’으로 선포하고 간토희생자를 추도하는 집회를 열자는 결의를 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개신교에서 먼저 시작된 추도행사는 앞으로 시민운동의 활성화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다.

5) 학살 희생자 유족찾기 사업

한국에서 간토조선인학살 유족을 만난 것은 규슈의 평화운동가 쿠와노 야스오씨의 소개로 2007년 재일동포 조건치씨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는 목포에 사는 유족 김대원씨(1926년생으로 올 해 3월에 별세)의 일을 돕다가 중단하였다고 하였다.

2008년 김대원씨는 청소년기에 한 날 한 시에 제사를 지내는 유족들로부터 어른들의 한 맺힌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에 김대원씨의 친족들은 도쿄로 갔다. 먼저 일본에 갔던 마을사람이 돌아와 일본의 공장에서 일하기를 설득했던 것이다. 이 와중에 간토대진재가 있었고, 김대원 할아버지의 친족들이 몰살당했다. 그 중 일본어를 잘 하는 한 사람이 이웃집으로 숨어들어 피해를 면하고 고국으로 귀향하여 이 사실을 전해 준 것이다. 돌아가신 친족들의 사망기록은 도쿄 아사쿠사에서 같은 날 지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대원씨는 어르신들의 삶이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국가가 나서서 진상조사를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일본에서 죽어간 6천여 명의 조선인들이 폭도가 아니고, 테러분자도 아니며, 흉악범이 아닌 것을 한국정부가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본 간토 희생자 추도집회에도 참여하고, 어른들이 일했을 가능성이 있는 요코야미쵸 공원(옛 군수공장 자리)에 있는 위령당에도 찾아가 영혼

이라도 만나고 싶어했다.

김대원씨는 그동안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억울한 원혼을 풀어드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고 한다. 해방 후 박정희 정권에서는 말도 못하고 지내왔지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그래도 한줄기 희망을 가졌던 모양이다. 박지원 비서실장을 통해 진상 규명을 요청했지만 형식적인 대답뿐, 이렇다 할 정부의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한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몸져누웠다.

2008년 추도식을 마친 후, 목포로 내려가 김대원씨를 만났다. 그는 ‘학살 사건 이후에 일본에서 헌병이 와서 200원을 주었고, 김씨는 그 돈으로 땅을 사서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일본 헌병이 와서 한국의 유가족을 찾아 위로금을 주었다 하면 당시 그 유가족 명단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그 문서를 찾으면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하면서 무언가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



2009년 3월에 열린 간토 심포지움을 마치고 일본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또 다른 유족들이 살고 있는 전남 신안으로 내려갔다. 그 곳에서는 희생된 선친들의 헛묘가 여러 곳에 있었다. 대부분 유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간신히 살아돌아온 이들이 이야기를 통해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었고, 사건을 철저히 은폐한 일본정부에게 더구나 식민지 조선인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조차 없었다.



김대원씨는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올 해 3월에 세상을 떠났다.

유족찾기 사업의 실마리는 일본에서의 진상조사활동을 통해 어렵사리 구한 자료들에 나타난 학살된 조선인의 신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당시 조사한 바로 6,661명이 학살되었다고 밝혔지만,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의 이름, 고향주소가 기록되어 있

는 사람은 불과 23인에 불과하다. 이들 중 일부라도 유족을 찾게 된다면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고 국가차원의 사죄를 요구하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운동의 평가와 과제

1)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운동의 평가

일제하 식민지범죄에 대하여 일본국가에 책임을 묻는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처럼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역시 일정한 조직 속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채 출발하였다. 그리고 수년동안 그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이 일을 전업으로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일은 아힘나 캠프로 부터 시작되었기에 이 캠프를 주최한 시민단체 ‘아힘나운동본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으며, 행사준비에 필요한 재정은 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으나. 그 실무는 모두 아힘나평화학교 교사들이 나누어 맡았다.

2009년과 10년은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해 많은 대일관련 역사단체와 연대하여 식민지범죄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모색하고자 연대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에 간토조선인학살사건도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대중홍보사업과 특별법추진사업, 그리고 추도사업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은 2011년부터 결합하여 힘이 되어준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회(이하 기장 교사위)와 생명성교연대였다. 기장 교사위는 9월 첫 주가 재일동포선교주일로 제정된 이유를 교회에 알리기 위하여 전국 교회에 권고문과 자료들을 발송해 주었다. 또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간토학살희생자 추모예배와 재일동포선교사역을 총회의 사업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바탕으로 한일 기독교계의 공식적인 구조의 하나인 한일 URM협의회에서 간토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자는 결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2013년 추진된 [한국민간조사단]의 현장조사활동은 SBS 8.15특집 다큐멘터리로, 그리고 재외한국인을 위한 아리랑방송국에서도 오는 9월 초에 방영할 예정이고, 마침 9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언론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가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간토 코리아제노사이드희생자 90주기행사 준비위원회’는 로 조직을 정비하게 된 것은 향후의 일을 추진해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특별법제정의 법안마련을 위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상희 변호사가 협력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유기홍의원과 임수경의원이 앞장서서 간토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고, 최근 동북아역사왜곡특위에서 간토조선인학살사건을 역사왜곡의 중요한 주제로 삼아가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진상규명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적은 인원으로 움직이는 ‘1923 한일재일시민연대’를 위해 학술적 지원과 수십 년 간의 진상조사활동의 자료들을 지원하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비를 들여 한국을 찾아주는 일본의 연구자들과 진상규명활동가들의 시들지 않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2)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운동의 향후 사업 및 과제

- 간토조선인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는 일
- 학살희생자의 유족을 찾는 일
- 일본정부에 국가적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일
- **일본에 있는 간토관련 문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번역, 출판) 하는 일**
- 전 세계인이 간토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
- **한일 민간단체가 공동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간토역사 부교재를 제작하여 교육현장에 보급하는 일**
- 한일 역사 및 사회교과 교사들을 위한 교육자료 제공 및 연수를 실시하는 일
- **정기적인 간토학살현장 스터디투어를 실시하는 일**
-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을 연구하는 연구생들을 지원하는 일
- **간토학살 역사교육관을 설립하는 일**
- 위 사업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재정과 인력을 늘려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을 확대해 가는 일

이상.